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과 가구경제

반정호*

I. 머리말

베이비붐(baby boom)은 어떤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출생코호트를 베이비부머(baby boomer)라 일컫는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2차 세계대전 후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급증하는 베이비붐을 경험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직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9년간에 걸쳐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통계청, 2012).¹⁾ 2010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만 47~55세)는 6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 중 50세(1960년생)가 87만 명(12.5%), 48세(12.3%), 49세(12.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애주기상 중년에 해당되는 베이비붐 세대는 청년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였고, 장년기에 외환위기와 위기 이후 고용유연화를 중심으로 재편된 노동시장 구조 안에서 안정된 소득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대부분 노동시장을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계층이다. 특히 이들은 근로능력을 상실한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자녀세대의 교육을 위해 양방향의 경제적 부담을 진 채 정작 본인들의 노후를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세대(김지경, 2010; 남상호, 2011)이며, 인구고령화로 인해 길어진 노년기를 불충분한 소비생활을 통해 영위해 나가야 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의 노동시장 은퇴는 숙련 노동력 부족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과 근로소득 감소에 의한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jhban@kli.re.kr).

1) 미국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2.94~3.76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1946~1964년생을 베이비부머라 부르고 있으며, 일본은 출생아 수 기준으로 1947~1949년생(806만 명)을 제1차 베이비붐세대(단카이세대), 1971~1974년생을 제2차 베이비붐세대(에코세대)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코세대는 베이비부머가 낳은 자녀로 정의되는데 1979~1992년까지 14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며 2010년 11월 기준 954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통계청, 2012).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보장 문제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출 압박이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사회보장 제도가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 이들은 빈곤한 노년기를 보내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소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본인의 노동력을 상품화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노년기의 근로소득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상태나 노동시장 상황에 따른 유동성 또한 크기 때문에 안정된 소득원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노년으로 갈수록 소비활동을 유지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자녀세대의 사적이전에 크게 의존하거나, 근로생애 동안 축적한 자산(특히 금융자산)이나 부모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자산을 처분하거나 혹은 금융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반정호, 2008).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한 시점에 주택가격이 하락한 경험처럼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 하락과 주택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있어 자산의 소득화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본고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과 가구경제 수준과 그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상태에 따른 소득과 자산실태, 분배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가계금융조사」를 패널자료화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은퇴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수준변화를 파악해 보았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2011년 기준 만 48~56세)의 소득수준과 구성변화, 빈곤 및 분배실태를 베이비붐 이전 세대(만 57세 이상)와 이후 세대(만 47세 이하)와 비교한다. 제Ⅲ장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자산의 규모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가구경제의 특성변화를 다룬다. 끝으로 제Ⅳ장에서는 일련의 분석들을 요약·정리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안정과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실태와 변화

1.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실태와 구성변화

여기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과 구성변화를 베이비붐 이전과 이후 세대와 비교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창출력이 실제로 은퇴시점에 가까울수록 어느 정도 약화되고 있

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분석자료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대상 변화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2인 이상 도시가구와 1인 이상 전국가구를 분리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분석에 활용된 소득관련 변수들은 가구의 규모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가구별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주는 균등화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가구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개인가중치를 활용하였다. 이는 소득규모가 동일한 가구일지라도 가구원 수의 차이에 의해 이들 가구의 후생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되는 소득금액은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²⁾

<표 1>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상소득의 원천별 규모와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실태와 변화를 제시해 주고 있다.³⁾ 베이비붐 세대는 경상소득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992천 원에서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 956천 원으로 하락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2,358천 원 수준까지 증가해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같은 기간 958천 원 수준에서 2,129천 원까지 증가해 베이비붐 세대보다 다소 높은 6.6%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5.7%의 경상소득 증가율을 보인다. 2011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는 만 48~56세 연령으로 노동시장 은퇴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기간 동안 베이비붐 세대 가구소득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소득(경상소득 기준)은 1996년 대비 2.38배 정도 증가했고 이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 1.58배와 베이비붐 이후 세대 2.22배보다 높다.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 본인의 근로소득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7.1%의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였다. 1996년 513천 원에서 2011년 1,020천 원까지 2배 가까이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경우 같은 기간 베이비붐 세대보다 근로소득 절대액이 높게 형성된 채 7.8%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으며, 1996년 두 세대간 근로소득의 차이는 62천 원에서 2011년에는 240천 원까지 격차가 점차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 1996년 장년층이었던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2000년에 중고령자(45세 이상), 2011년에 57세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노동시장 은퇴가 본격화된 연령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의 근로소득은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8년과 2000년 두 시점에서 크게 침체되었고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2) 가구균등화 및 가중치 적용방식은 후술하게 될 가구 자산관련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소득 및 자산금액은 소비자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명목금액이다.

3)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공·사이전소득
 시장소득=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경상소득-공적비소비지출(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4) 베이비붐 세대와 이후 세대의 가구주 본인의 실질 근로소득 격차는 1996년 99천 원에서 2011년 230천 원이다.

〈표 1〉 세대별 소득규모와 추이 : 2인 이상 도시가구(1996~2011)

(단위 :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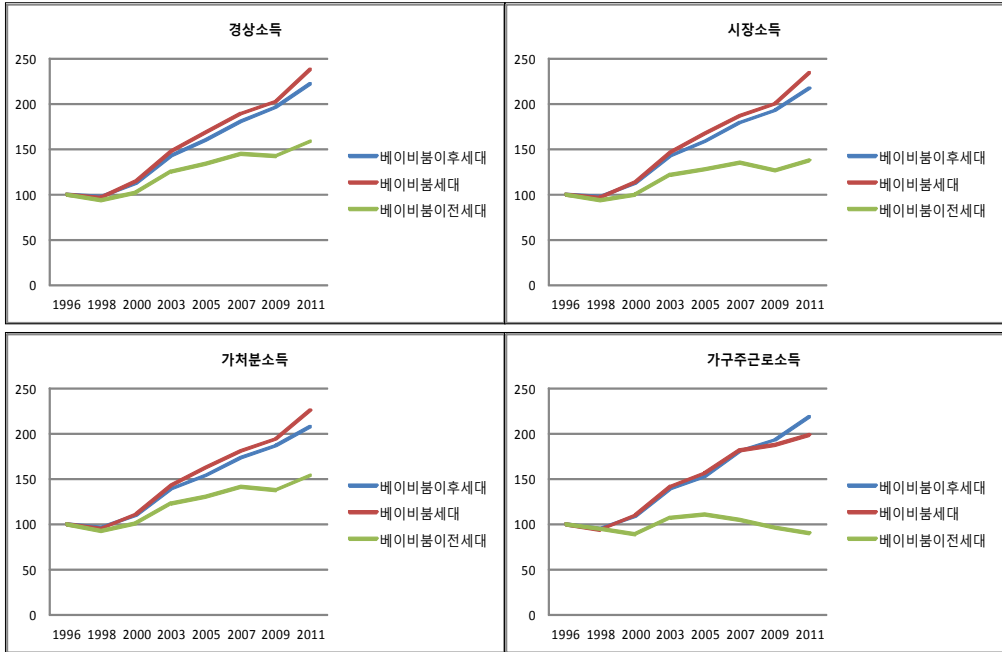
		경상 소득	가구주 근로	가구원 근로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이 전소득	공적이 전소득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1996	이후세대	958	575	149	174	8	46	6	951	916
	베이비붐	992	513	90	344	7	33	6	985	945
	이전세대	1,143	446	229	384	19	48	18	1,124	1,088
1998	이후세대	932	545	134	187	6	55	5	927	881
	베이비붐	956	480	94	332	13	32	5	951	902
	이전세대	1,072	423	212	342	22	54	19	1,052	1,008
2000	이후세대	1,074	627	139	237	8	54	9	1,064	1,006
	베이비붐	1,134	565	127	371	10	51	10	1,123	1,056
	이전세대	1,173	399	262	372	26	72	41	1,129	1,098
2003	이후세대	1,373	804	204	283	6	64	13	1,358	1,273
	베이비붐	1,461	724	216	451	6	50	13	1,446	1,353
	이전세대	1,434	482	392	414	17	71	58	1,373	1,341
2005	이후세대	1,531	878	220	328	5	82	19	1,509	1,415
	베이비붐	1,673	802	276	494	6	73	22	1,647	1,542
	이전세대	1,531	495	442	392	16	103	83	1,443	1,426
2007	이후세대	1,735	1,036	257	329	4	84	25	1,705	1,590
	베이비붐	1,875	933	323	513	8	73	25	1,846	1,715
	이전세대	1,669	467	507	433	22	109	130	1,531	1,541
2009	이후세대	1,883	1,108	283	357	5	94	36	1,834	1,711
	베이비붐	2,014	962	407	527	7	76	34	1,974	1,841
	이전세대	1,632	429	505	410	16	81	191	1,433	1,507
2011	이후세대	2,129	1,260	300	413	5	114	36	2,068	1,907
	베이비붐	2,358	1,020	551	646	6	90	44	2,306	2,142
	이전세대	1,811	403	599	447	21	98	243	1,560	1,672
증가율	이후세대	6.6	7.8	10.6	1.5	-1.8	11.0	15.9	6.4	6.0
	베이비붐	6.2	7.1	7.6	4.4	-8.4	5.4	8.0	6.2	5.8
	이전세대	5.7	-2.5	13.3	7.5	11.4	5.0	39.1	4.4	5.5

주 : 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은 각 세대별 소득규모를 지수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경상소득 및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모두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두 세대보다 높은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나 가구주, 즉 베이비붐부터 본인의 근로소득은 2007년 시점부터 증가폭이 둔화되고 베이비붐 이후 세대보다 소득창출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시점은 베이비붐 세대가 만 44세에서 52세로 중고령자에 속하는 연령이다.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이들이 만 53

[그림 1] 세대별 소득지수 변화



자료 : <표 1>과 동일.

세가 되는 시점, 즉 은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가구소득 증가가 둔화되는 양상이 뚜렷해 보이고, 특히 가구주 본인의 근로소득은 2005년 시점(만 51세 이상)에서 하락하기 시작해 2009년(만 55세 이상)에는 1996년 시점보다 낮아지기 시작한다.

<표 2>는 각 세대별 소득원천별 구성비와 그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소득은 1996년 기준 51.7% 본인 근로소득과 9% 정도의 기타가구원 근로소득, 그리고 34.7%의 사업소득 그리고 4% 정도의 공·사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약 15여 년이 지난 2011년에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구성에 큰 변화가 엿보인다. 베이비부머인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3%(8.4%p 하락), 사업소득은 27.4%(7.3%p 하락)까지 크게 하락한 대신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은 23.4%까지 크게 높아졌으며, 공·사 이전소득도 5.7%까지 증가했다. 즉 가구주인 베이비부머의 연령이 점차 높아져 중년에 이르는 동안 본인의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화되고 대신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미 노동시장 은퇴가 일정정도 진행된 2011년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22.2%)과 사업소득(24.7%) 구성비는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대신 1996년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 구성비가 20%에서 2011년 33%까지 증가해 본인을 제외한 가족 소득원에 대한 의존도

<표 2> 세대별 소득구성과 변화: 2인 이상 도시가구(1996~2011)

(단위: %)

		경상소득	가구주 근로소득	가구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1996	이후세대	100	60.0	15.5	18.2	0.8	4.8	0.6
	베이비붐	100	51.7	9.0	34.7	0.7	3.3	0.6
	이전세대	100	39.0	20.0	33.6	1.6	4.2	1.5
1998	이후세대	100	58.5	14.4	20.1	0.6	5.9	0.5
	베이비붐	100	50.2	9.8	34.8	1.3	3.4	0.5
	이전세대	100	39.5	19.7	31.9	2.1	5.0	1.8
2000	이후세대	100	58.4	13.0	22.1	0.7	5.1	0.8
	베이비붐	100	49.8	11.2	32.7	0.8	4.5	0.9
	이전세대	100	34.0	22.3	31.8	2.2	6.1	3.5
2003	이후세대	100	58.5	14.8	20.6	0.4	4.6	0.9
	베이비붐	100	49.6	14.8	30.9	0.4	3.4	0.9
	이전세대	100	33.6	27.3	28.9	1.2	4.9	4.1
2005	이후세대	100	57.3	14.4	21.4	0.3	5.3	1.2
	베이비붐	100	47.9	16.5	29.5	0.4	4.3	1.3
	이전세대	100	32.3	28.9	25.6	1.1	6.7	5.4
2007	이후세대	100	59.7	14.8	19.0	0.2	4.8	1.4
	베이비붐	100	49.8	17.2	27.4	0.4	3.9	1.4
	이전세대	100	28.0	30.4	26.0	1.3	6.5	7.8
2009	이후세대	100	58.9	15.0	19.0	0.2	5.0	1.9
	베이비붐	100	47.8	20.2	26.2	0.4	3.8	1.7
	이전세대	100	26.3	31.0	25.1	1.0	5.0	11.7
2011	이후세대	100	59.2	14.1	19.4	0.3	5.4	1.7
	베이비붐	100	43.3	23.4	27.4	0.3	3.8	1.9
	이전세대	100	22.2	33.0	24.7	1.2	5.4	13.4

자료: <표 1>과 동일.

가 높아졌으며, 공·사 이전소득의 의존도는 1996년 5.7%에서 2011년 18.8%로 높아졌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의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경우 2008년 이후 수급이 개시된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와 기초노령연금 등의 사회보장 수혜자가 이들 코호트에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에서는 1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규모와 구성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상소득은 2006년 1,754천 원에서 2011년 2,317천 원까지 증가하고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역시 유사한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대간 비교에서도 베이비붐 이전 세대에서의 소득정체 현상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세대의 소득은 증가해 소득창출력이 약화되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앞서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세대의 가구주 본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구성비 하락과 기타가구원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 현상이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2006년 가구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비중은 각각 48.9%와 28.7%로 전체 가구소득 대비 77.6%로 노동시장을 통해 획득되는 소득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2011년에는 각각 44.4%와 27.0%로 71.4%까지 하락한 반면, 기타가구원 근로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16.5%에서 22.3%까지 높아져 해당 가구의 베이비부머 본인 이외의 가족구성원 소득의존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소득구성의 변화는 이미 노동시장 은퇴가 활발하게 진행된 베이비붐 이전 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 가구의 가구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구성비는 1996년 30.5%와 25.6%로 이미 일정정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고, 2011년에는 22.3%와 24.5%까지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반면 기타가구원 근로소득 의존도는 같은 기간 26.8%에서 29.6%까지, 공·사 이전소득 의존도는 16.0%에서 22.5%까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세대별 소득규모와 추이 : 1인 이상 전국가구(2006~2011)

(단위: 천 원, %)

	2006			2007			2009			2011		
	이후 세대	베이비 붐	이전 세대	이후 세대	베이비 붐	이전 세대	이후 세대	베이비 붐	이전 세대	이후 세대	베이비 붐	이전 세대
소득금액												
시장소득	1,566	1,728	1,335	1,680	1,817	1,361	1,810	1,939	1,273	2,031	2,265	1,347
가처분소득	1,464	1,610	1,346	1,571	1,693	1,393	1,693	1,812	1,360	1,879	2,107	1,475
경상소득	1,589	1,754	1,449	1,711	1,848	1,506	1,858	1,981	1,468	2,093	2,317	1,593
가구주근로	931	857	442	1,021	917	414	1,091	951	379	1,241	1,029	354
기타근로	219	289	389	244	316	416	269	389	418	282	516	472
사업소득	334	503	370	333	507	383	367	520	358	417	626	390
재산소득	4	7	15	4	8	20	5	8	15	5	7	19
사적이전 소득	83	77	127	84	74	138	92	78	111	113	96	121
공적이전 소득	18	21	106	25	26	134	34	36	187	36	44	237
구성비												
경상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주근로	58.6	48.9	30.5	59.7	49.6	27.5	58.7	48.0	25.8	59.3	44.4	22.3
기타근로	13.8	16.5	26.8	14.3	17.1	27.6	14.5	19.6	28.5	13.5	22.3	29.6
사업소득	21.0	28.7	25.6	19.4	27.4	25.4	19.8	26.3	24.4	19.9	27.0	24.5
재산소득	0.3	0.4	1.0	0.2	0.4	1.3	0.3	0.4	1.0	0.2	0.3	1.2
사적이전 소득	5.2	4.4	8.7	4.9	4.0	9.2	5.0	3.9	7.6	5.4	4.1	7.6
공적이전 소득	1.1	1.2	7.3	1.5	1.4	8.9	1.8	1.8	12.7	1.7	1.9	14.9

자료: <표 1>과 동일.

2.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과 경제적 어려움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 고용과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빈곤율과 적자가구 지표 등을 통해 파악해 본다. 우선 <표 4>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적용한 절대빈곤율 지표와 중위소득(50% 미만)을 이용한 상대빈곤율 지표, 그리고 가구의 소비 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상회하는 적자가구 비중 지표를 각각 제시해 주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절대빈곤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에 3.8%에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9.5%까지 크게 급증했고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 2011년 현재 5.5%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

<표 4> 세대별 빈곤율 및 적자가구 비중 추이 : 2인 이상 도시가구(1996~2011)

(단위 : %)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적자가구	
		100%	120%	150%	200%	250%				
1996	이후세대	3.9	2.6	7.4	19.5	66.6	8.8	(1.5)	13.0	(2.2)
	베이비붐	3.8	3.3	6.7	18.2	68.0	8.5	(3.2)	10.3	(3.9)
	이전세대	4.5	2.9	5.5	13.7	73.3	9.7	(4.4)	13.3	(6.0)
1998	이후세대	8.1	4.8	12.3	21.4	53.3	10.2	(2.5)	11.3	(2.7)
	베이비붐	9.5	6.0	11.3	20.6	52.7	10.8	(4.0)	11.8	(4.4)
	이전세대	10.5	5.8	8.2	17.2	58.3	12.8	(4.9)	16.4	(6.3)
2000	이후세대	5.9	4.6	9.5	20.6	59.4	8.7	(2.8)	16.7	(4.5)
	베이비붐	6.5	4.0	10.1	20.6	58.7	8.3	(3.0)	18.3	(6.6)
	이전세대	9.8	4.7	8.6	18.4	58.6	13.7	(5.1)	22.3	(8.3)
2003	이후세대	4.5	3.1	6.9	15.2	70.4	9.5	(3.3)	16.3	(5.6)
	베이비붐	4.7	2.2	6.2	15.4	71.5	8.5	(3.1)	18.4	(6.6)
	이전세대	11.0	4.4	7.5	11.6	65.5	19.6	(5.8)	21.4	(6.3)
2005	이후세대	6.5	3.7	7.0	16.4	66.5	11.2	(4.4)	18.4	(7.1)
	베이비붐	5.5	2.8	5.8	12.9	73.0	9.4	(3.2)	20.2	(6.8)
	이전세대	13.8	4.5	7.2	12.6	61.9	22.0	(6.1)	22.4	(6.2)
2007	이후세대	6.1	2.7	6.8	14.3	70.1	10.5	(4.5)	18.5	(8.0)
	베이비붐	5.6	2.7	5.9	12.8	73.1	9.7	(3.0)	21.8	(6.7)
	이전세대	17.9	4.6	8.5	11.5	57.5	28.1	(7.4)	22.8	(6.0)
2009	이후세대	6.1	3.7	7.6	15.8	66.9	10.5	(5.2)	19.5	(9.7)
	베이비붐	6.6	2.7	6.1	12.8	71.8	10.2	(2.9)	21.2	(6.0)
	이전세대	25.4	5.4	8.2	14.4	46.6	33.3	(7.3)	22.3	(4.9)
2011	이후세대	5.3	2.9	5.7	14.1	72.0	9.5	(5.3)	20.9	(11.6)
	베이비붐	5.5	2.3	4.9	9.7	77.5	9.6	(2.4)	18.7	(4.6)
	이전세대	26.3	5.6	7.7	10.8	49.7	36.7	(7.3)	24.3	(4.9)

주 : 1)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각 세대별 발생비를 의미함.

2) ()는 전체인구에서 상대빈곤층 및 적자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표 1>과 동일.

다.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이 1996년 3.9%에서 2011년 5.3%까지 소폭 증가했다. 이를 최저생계비 150%(차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면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1996년 약 13.9%에서 1998년 25.2%까지 증가했지만 그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1년에는 1996년과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6.8%까지 증가했고 2011년 현재 12.7%로 1996년(13.8%)보다 약 1.1%p가량 하락했다.

세대별 절대빈곤율은 노인계층을 포함하고 있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에서 가장 높다.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절대빈곤율은 최저생계비 100%를 기준으로 하면 2011년 26.3%에 이르고 이는 1996년 4.5%에서 무려 21.8%p 증가한 것이다. 최저생계비 150%까지 확대하면 이 비중은 2011년 기준 39.6%까지 높아진다.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인 상대빈곤율도 다른 세대에서는 최소 1.5%에서 최대 5.3%인 것과 대조적으로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2011년 기준 7.3%에 이른다. 세대별로 상대빈곤이 발생하는 경향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 근로를 지속하고 있는 베이비붐 이후 세대와 은퇴가 본격화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에서 대략 10%대를 유지하는 데 비해 노동시장을 은퇴했거나 진행 중인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30% 중반에 이르고 있으며, 추세적으로도 이들 세대가 은퇴가 이루어지는 연령대와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적자가구 비중은 1996년 3.9%에서 2005년 6.8%까지 증가했고 이후 소폭 하락해 2011년 기준 4.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11년 기준 베이비붐 이전(4.9%)과 이후 세대(11.6%)의 적자가구 비중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 내 적자가구 발생비는 18.7%로 타 세대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세대를 막론하고 가구에서 발생하는 지출규모가 처분가능한 소득을 상회하는 가구가 대략 20%에 이르러 5가구 중 1가구는 획득되는 소득보다 지출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경(2010)의 지적처럼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력을 잃은 부모세대를 물질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부담과 자녀세대의 교육을 위해 교육(양육)을 위한 지출 몫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세대이다. 이처럼 가구의 지출패턴이 어느 한 방향으로 고착화되고 그 규모를 소득수준에 맞게 유동적으로 변화시키기 불가능한 가구일수록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패턴은 베이비붐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듯하다. 베이비붐 세대 못지않게 그 이후 세대 역시 자녀양육과 사교육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몫은 여전히 큰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사회보장시스템이 미약한 상황에서, 그리고 소득규모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주거비와 의료비 등 필수재적 소비에 대한 지출규모가 늘어날 경우 적자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세대이기도 하다.

<표 5>에서는 각 세대의 고용형태별 상대빈곤 실태와 추이를 살펴보았다. 베이비붐 세

대의 고용형태별 빈곤율은 2006년 상용직이 4.4%에서 2011년 1.3%로 낮아졌고, 임시일용직의 빈곤율은 2006년과 2007년 3%대에서 2011년 4.5%로 소폭 증가했다.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2011년 상용직의 상대빈곤율이 5.1%로 베이비붐 세대보다 오히려 높고 임시일용직과 자영자 모두에서 빈곤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일하면서도 빈곤에 처해 있는 근로빈곤화 경향은 베이비붐 세대보다는 오히려 베이비붐 이후 세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미취업자의 빈곤율이 40%에 이르고 있어 이들 세대의 빈곤은 노동시장 은퇴에 따른 근로소득 손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형태별 빈곤구성과 발생비를 살펴보면 각 세대 대부분에서 미취업자와 임시일용직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고용과 빈곤이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특징적인 것은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상용직에서의 빈곤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베이비붐 세대와 그 이전 세대에서는 상용직의 빈곤가능성이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이다. 이는 베이비붐 이후 세대 코호트에 청년층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이

〈표 5〉 세대×고용형태별 상대빈곤 실태 : 1인 이상 전국가구(2006~2011)

(단위 : %)

		베이비붐 이후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이전		
		비율	구성비	발생비	비율	구성비	발생비	비율	구성비	발생비
2006	상용직	8.7	34.0	48.5	4.4	24.0	24.4	4.9	8.7	27.2
	임시일용직	4.2	16.2	36.6	2.7	14.9	23.9	4.5	8.0	39.5
	자영자	5.5	21.6	31.8	4.9	26.9	28.2	7.0	12.4	40.0
	미취업	7.2	28.1	13.5	6.3	34.2	11.7	39.8	70.9	74.8
2007	상용직	8.8	35.2	47.0	4.6	25.1	24.6	5.3	9.3	28.3
	임시일용직	3.8	15.3	30.1	3.2	17.7	25.7	5.6	9.8	44.2
	자영자	5.7	23.0	34.9	4.6	25.4	28.3	6.0	10.6	36.8
	미취업	6.6	26.5	12.6	5.8	31.8	11.1	40.1	70.4	76.4
2009	상용직	3.5	12.7	62.3	0.9	5.4	15.6	1.2	2.2	22.1
	임시일용직	10.9	39.2	39.4	6.5	39.8	23.6	10.2	18.3	37.1
	자영자	4.5	16.1	32.5	3.7	22.8	27.0	5.6	10.0	40.5
	미취업	8.9	32.0	16.8	5.2	32.0	9.9	38.9	69.6	73.4
2011	상용직	5.1	17.8	58.0	1.3	10.0	14.7	2.4	4.1	27.2
	임시일용직	9.1	31.8	37.4	4.5	34.8	18.6	10.8	18.5	44.1
	자영자	5.8	20.1	43.5	2.2	16.8	16.5	5.3	9.1	40.0
	미취업	8.7	30.3	16.3	5.0	38.4	9.3	39.8	68.3	74.4

주 : 1) 2008년 이전 「가계동향조사」의 고용형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와 다른 형태로 조사되었고 이후 경향조사의 종사상지위와 맞게 새롭게 분류한 것이어서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짐에 유의할 것.

2) 상대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비율은 전체 빈곤인구에서 각 세대별 고용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 <표 1>과 동일.

들의 일자리 상황과 소득수준이 낮은 데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다.)

<표 6>에서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주 고용형태별 소득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고용형태에서 소득이 향상되고는 있었으나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규모의 차이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임시일용직은 상용직 시장소득의 56.1%에 해당하는 1,139천 원으로 나타났고 자영자는 76.7%, 미취업자는 상용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51천 원(46.8%) 소득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년에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자 가구의 시장소득이 상용직 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그 수준이 상용직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미취업자의 경우는 상용직의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 경제력은 취업여부는 물론 고용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베이비부머가 상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전체 가구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의 경우 76.0%로 높았고 2011년에도 73.3%로 크게 낮아

<표 6>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형태별 소득실태 : 1인 이상 전국가구(2006~2011)

(단위 : 천 원, %)

		비중	경상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본인근로사업소득	이전소득
2006	상용직	51.5	2,053	2,031	1,851	1,559 (76.0)	61 (3.0)
	임시일용직	7.8	1,165	1,139	1,119	723 (62.1)	69 (5.9)
	자영자	34.1	1,575	1,558	1,479	1,209 (76.8)	66 (4.2)
	미취업	6.6	1,045	951	982	250 (23.9)	579 (55.4)
2007	상용직	51.9	2,173	2,145	1,958	1,638 (75.4)	76 (3.5)
	임시일용직	8.3	1,252	1,215	1,203	742 (59.3)	124 (9.9)
	자영자	32.7	1,649	1,632	1,545	1,270 (77.0)	46 (2.8)
	미취업	7.1	1,082	970	1,004	279 (25.8)	507 (46.9)
2009	상용직	39.2	2,553	2,516	2,281	1,965 (77.0)	65 (2.6)
	임시일용직	21.8	1,420	1,354	1,336	790 (55.6)	147 (10.4)
	자영자	32.1	1,848	1,834	1,727	1,357 (73.4)	47 (2.5)
	미취업	6.9	1,124	991	1,047	209 (18.6)	588 (52.3)
2011	상용직	41.7	2,826	2,788	2,512	2,071 (73.3)	89 (3.2)
	임시일용직	18.6	1,690	1,615	1,584	902 (53.4)	175 (10.4)
	자영자	32.1	2,262	2,241	2,098	1,606 (71.0)	60 (2.6)
	미취업	7.6	1,299	1,096	1,198	206 (15.9)	670 (51.6)

주 : ()는 경상소득 대비 해당 소득원천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 <표 1>과 동일.

5) 2011년 기준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비중은 46.8%로 다른 세대(베이비붐 22.5%, 베이붐 이전 세대 30.7%)보다 비중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세대가 포함하고 있는 연령대도 다른 세대에 비해 포괄적이다. 참고로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30세까지 비율은 9.4%, 35세까지 누적비율이 27.9%로 젊은 연령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지지 않는 양상이며, 이는 자영자 가구에서도 유사하다. 반면 베이비부머가 임시일용직과 미취업자인 경우는 같은 기간 이 비중이 각각 62.1%→53.4%, 23.9%→15.9%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베이비부머의 고용불안은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사적이전 및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공적이전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임시일용직 가구의 이전소득 의존율은 2006년과 2011년 5년 사이 5.9%→10.4% 크게 증가했고, 미취업자 가구의 경우 2011년 기준 이전소득 의존율이 51.6%로 해당 가구소득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표 7>에서는 세대별 소득분배 현황과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세대에서 외환위기를 전후로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붐

<표 7> 세대별 주요 분배지표 추이 : 도시 2인 이상 가구(1996~2011)

(단위 : %)

		GINI계수	하위20% 소득점유율	상위20% 소득점유율	5분위배율
1996	이후세대	0.247	9.7	34.3	3.5
	베이비붐	0.248	9.4	34.3	3.6
	이전세대	0.279	8.1	35.9	4.4
1998	이후세대	0.264	8.9	35.3	4.0
	베이비붐	0.277	8.2	36.2	4.4
	이전세대	0.318	6.7	38.5	5.7
2000	이후세대	0.252	9.2	34.9	3.8
	베이비붐	0.265	8.9	35.6	4.0
	이전세대	0.306	6.8	37.4	5.5
2003	이후세대	0.252	9.0	34.3	3.8
	베이비붐	0.267	8.6	35.4	4.1
	이전세대	0.335	5.7	39.3	6.9
2005	이후세대	0.274	8.3	35.8	4.3
	베이비붐	0.280	8.0	36.0	4.5
	이전세대	0.349	5.3	40.4	7.6
2007	이후세대	0.282	8.1	36.5	4.5
	베이비붐	0.297	7.7	37.5	4.9
	이전세대	0.390	4.0	42.8	10.6
2009	이후세대	0.285	8.0	36.5	4.5
	베이비붐	0.295	7.4	37.1	5.0
	이전세대	0.420	3.1	45.1	14.6
2011	이후세대	0.275	8.3	36.1	4.3
	베이비붐	0.292	7.5	37.0	4.9
	이전세대	0.427	2.8	45.0	16.3

자료 : <표 1>과 동일.

이전 세대의 소득분배 악화가 두드러진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하위20% 소득점유율은 9.4%에서 2011년 기준 7.5%까지 하락한 반면, 상위20% 소득점유율은 같은 기간 34.3%에서 37%까지 증가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타 세대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베이비붐 이전 세대에서 최근으로 오면서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6년 하위20%의 소득점유율은 8.1%로 베이비붐 이후 세대(9.7%)와 베이비붐 세대(9.4%)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1년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하위20% 소득점유율은 2.8%까지 하락했으며, 상위20% 소득점유율은 같은 기간 35.9%에서 9.1%p 상승한 45.0%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세대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은 1996년 4.4배에서 2011년에 무려 16.3배까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근로소득의 감소에 따른 격차확대가 가장 주된 원인이며, 이와 같은 소득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미비에서 또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Ⅲ.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

1.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현황

전술한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노년기로 접어들면 해당 가구의 경제적 복지는 근로소득보다는 축적된 자산의 규모와 소득화 가능성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세대별 자산보유 현황과 변화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 보장의 충분성 정도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2006년 베이비붐 세대의 총자산은 17,914만 원 수준이며, 그 구성은 부동산 자산이 76.4%, 저축액과 전월세보증금을 합한 금융자산이 20.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총자산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15,227만 원 수준이며, 부채액의 경우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보다 다소 많은 2,687만 원이다. 2011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규모는 총자산이 18.5% 증가한 21,229만 원이며, 부동산 자산은 14.3% 증가한 15,635만 원으로 나타난다. 주택경기 침체와 부동산 하락 등의 원인으로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거주주택의 자산가치는 각각 6.1%, 3.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⁶⁾ 상대적으로 자산의 소득화가 용이한 금융자산의 규모 변화를 살펴보

6) 자산가격을 소비자물가로 환산한 실질가격은 베이비붐 세대의 총자산은 0.4% 증가에 그치고 베이비붐세대와 이전 세대의 거주주택 자산가치는 각각 20.5%, 17.9%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8〉 세대별 자산 보유현황과 변화

(단위 : 만 원, %)

	2006				2011			
	전체	이후 세대	베이비 붐	이전 세대	전체	이후세대	베이비붐	이전세대
구성비	100	35.2	26.6	38.2	100	44.0	21.8	34.2
총자산	17,182	11,083	17,914	23,949	18,088	13,781 (24.3)	21,229 (18.5)	23,051 (-3.7)
부동산자산	13,202	7,411	13,683	19,833	13,276	9,034 (21.9)	15,635 (14.3)	18,896 (-4.7)
거주주택	7,819	5,212	8,424	10,428	7,179	5,229 (0.3)	7,912 (-6.1)	10,111 (-3.0)
주택이외	5,383	2,199	5,259	9,405	6,097	3,805 (73.0)	7,722 (46.8)	8,784 (-6.6)
기타자산	482	449	531	474	597	602 (34.1)	696 (31.1)	488 (3.0)
자동차	317	333	348	267	439	459 (37.8)	507 (45.7)	335 (25.5)
저축총액	3,499	3,223	3,700	3,642	4,215	4,144 (28.6)	4,899 (32.4)	3,667 (0.7)
저축액	2,799	2,210	3,025	3,303	3,083	2,557 (15.7)	3,988 (31.8)	3,171 (-4.0)
전세보증금	626	906	598	311	994	1,393 (53.8)	811 (35.6)	427 (37.3)
월세보증금	73	107	77	28	138	195 (82.2)	100 (29.9)	69 (146.4)
순자산액	14,704	8,862	15,227	21,358	14,870	10,786 (21.7)	17,451 (14.6)	19,972 (-6.5)
부채총액	2,478	2,221	2,687	2,591	3,218	2,995 (34.8)	3,778 (40.6)	3,079 (18.8)
부채액	1,829	1,787	1,995	1,721	2,237	2,224 (24.5)	2,628 (31.7)	1,872 (8.8)
금융대출	1,695	1,664	1,839	1,593	2,234	2,222 (33.5)	2,624 (42.7)	1,868 (17.3)
임대보증금	649	434	692	870	981	771 (77.6)	1,150 (66.2)	1,206 (38.6)
경상소득	1,973	1,953	2,140	1,835	2,482	2,585 (32.4)	2,811 (31.4)	1,963 (7.0)

주 : ()는 전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원자료, 각 연도.

면 베이비붐 세대는 2006년 대비 32.4% 증가한 4,899만 원 수준으로 분석되며, 자산의 처분을 통한 소득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금융자산은 0.7%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저축액은 2006년 대비 4%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들 세대는 전월세 보증금이 크게 늘어 실제로 은퇴나 자녀의 출가 이후 주택을 처분하고 주거형태를 변화시키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순자산은 17,451만 원 수준으로 2006년 대비 14.6% 증가했고 이는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2011년 기준 부채규모는 3,778만 원으로 총자산대비 17.8%에 해당하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2006년과 비교해 부채규모는 40.6% 증가한 수치이다.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순자산이 6.5% 감소한 반면 부채는 18.8% 증가해 근로소득 손실에 따른 가계운영이 자산의 처분과 금융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와 그 이전 세대에서 저축과 금융자산이

감소한 가장 주된 원인으로 근로소득의 감소와 가계대출의 증가로 꼽고 있다. 또한 향후 가계부채 증가원인을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거주주택 마련이나 전월세보증금으로 꼽고 있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과 생활비 마련,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생활비 마련으로 꼽고 있어 세대별로 부채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가구의 욕구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9>에서는 연간 경상소득 5분위별 자산보유 현황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자산규모가 절대적으로 낮고 고소득층과의 자산격차가 보다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하위20%의 저소득층에서는 총자산이 2006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가구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대신 저축액은 소폭의 증가에 그친다. 즉 베이비붐 세대 중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저축여력이 최근으로 오면서 매우 미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총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2011년 1분위 기준, 25.9%)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높아 가구경제가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9> 베이비붐 세대의 경상소득5분위별 자산보유 현황

(단위 : 만 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배율
2006	총자산(a)	9,749	10,263	14,917	17,145	31,767	3.3
	부동산자산	7,706	7,889	11,678	13,189	23,763	3.1
	주택자산	4,234	5,210	6,135	8,773	14,888	3.5
	저축액	1,867	2,110	2,844	3,470	6,905	3.7
	부채액(b)	1,474	1,984	2,181	2,663	4,377	3.0
	순자산	8,275	8,279	12,737	14,482	27,390	3.3
	부채비중(b/a)	15.1	19.3	14.6	15.5	13.8	
2011	총자산(a)	8,483	11,090	15,061	20,839	40,206	4.7
	부동산자산	6,289	7,619	11,412	15,749	29,430	4.7
	주택자산	3,740	4,678	7,023	8,878	12,340	3.3
	저축액	1,938	3,167	3,217	4,455	9,317	4.8
	부채액(b)	2,195	2,217	3,324	3,616	6,234	2.8
	순자산	6,289	8,872	11,737	17,223	33,972	5.4
	부채비중(b/a)	25.9	20.0	22.1	17.3	15.5	

자료 : <표 8>과 동일.

2. 고용상태 변화와 은퇴에 따른 자산변동

여기에서는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2010년과 2011년 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상태 변화와 실제 은퇴가 이루어진 가구의 자산 및 소득수준의 변화를 파악해

〈표 10〉 고용상태 변화에 따른 자산변화

(단위: 만 원)

		상용 유지	임시 일용 유지	자영 유지	미취업 유지	상용→임 시일용/ 자영	상용/임 시일용/ 자영→미 취업	임시일용 /자영→ 상용	미취업→ 상용/임 시일용/ 자영	임시일용 ↔ 자영
이후 세대	구성비	58.2	6.3	19.4	1.0	4.0	1.8	4.5	2.0	2.8
	경상소득	202	103	212	28	74	-607	-24	81	-3
	총자산	1,523	558	1,479	2,328	1,753	-463	506	613	2,145
	순자산	1,097	584	674	1,362	1,274	-721	170	-400	1,487
	금융자산	496	267	374	400	953	460	360	112	259
	저축액	449	267	432	86	1,059	593	505	25	325
	부동산자산	977	260	767	1,887	380	-921	147	396	1,816
	부채액	427	-26	805	966	478	258	336	1,013	658
베이붐 세대	구성비	34.4	10.6	35.1	3.2	3.7	3.9	3.8	2.5	2.9
	경상소득	227	105	291	103	118	-458	149	37	39
	총자산	1,612	808	1,772	1,077	447	-746	-3,390	4,375	68
	순자산	1,333	762	1,555	124	-178	-1,360	-3,645	3,886	-287
	금융자산	638	338	774	793	242	256	22	568	3
	저축액	545	325	778	837	272	172	322	788	227
	부동산자산	875	461	739	341	60	-1,032	-3,739	3,695	-23
	부채액	279	46	217	954	625	614	255	490	354
이전 세대	구성비	8.9	7.7	29.7	33.3	2.8	7.6	1.7	5.9	2.4
	경상소득	227	96	179	14	676	-228	-571	479	-204
	총자산	2,245	917	-163	733	5,068	1,413	1,197	318	1,714
	순자산	2,213	789	-154	694	2,065	1,016	620	255	1,525
	금융자산	901	569	752	600	2,000	658	-246	-443	546
	저축액	950	497	659	607	2,242	679	-462	-379	473
	부동산자산	1,213	329	-1,180	103	2,704	677	1,431	719	1,047
	부채액	32	128	-10	40	3,003	397	577	63	189

자료: <표 8>과 동일.

본다. 2010년 조사대상 10,000가구 중 2011년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응답한 가구는 7,051 가구로 70.5%가량의 표본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은 2010년과 2011년 두 조사시점의 가구주 고용상태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후 이들 가구의 소득과 자산규모의 변화를 파악한 것이다. 우선 베이비붐 세대는 두 해 동안 상용직을 유지하는 경우 연간 경상소득은 227만 원 정도 증가하고 자영업을

유지한 경우 291만 원 증가했으며, 반면 임시일용직과 미취업을 유지한 경우 각각 105만 원, 103만 원 수준으로 소득증가가 상대적으로 둔화된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는 베이비붐 이후 세대나 이전 세대보다 과거와 동일한 고용상태를 유지할 경우 연간 경상소득의 증가규모가 소폭 높다.

전기(t-1)에 취업상태를 유지하다가 미취업상태로 전환한 경우 모든 세대에서 경상소득의 감소가 동반되고 베이비붐 이전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서 총자산과 순자산 그리고 부동산 자산의 감소가 경험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에서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에서 상용직으로 일자리가 변화한 경우 연간 경상소득은 149만 원가량 증가하지만 총자산은 3,390만 원 감소하는데, 이러한 자산의 감소는 대부분 부동산 자산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이는 자영업의 실패와 그에 따른 부동산 자산의 처분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중 미취업상태에서 일자리를 얻은 경우 경상소득은 37만 원가량 증가해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이들 세대의 일자리 획득이 가구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데, 이는 일자리의 고용상태와 임금수준 등 일자리 질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의 자산수준은 부동산 자산 증가에 기인해 총자산 기준 4,375만 원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경우 전기 대비 동일한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상용직과 자영자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에 연간 경상소득의 증가가 각각 227만 원, 179만 원 증가한 데 비해 임시일용직을 유지한 경우에는 연간 경상소득은 96만 원 증가에 그쳤고, 미취업을 유지한 경우 소득증가가 14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취업상태를 유지하다가 은퇴나 실직으로 인해 미취업상태가 된 경우 연간 경상소득은 228만 원 감소하고,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 일자리에서 상용직으로 일자리를 이동한 경우에도 571만 원의 소득감소가 발생한다.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자산의 감소는 자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부동산 자산의 감소가 크게 발생했고, 임시일용직/자영업→상용직 이동 및 미취업→취업 가구에서 저축액 감소에 기인한 금융자산의 감소가 크게 발생했다.

<표 11>에서는 세대별 노동시장 은퇴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변화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세대에서 가구주의 노동시장 은퇴에 따른 가구소득 감소가 두드러진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임금근로에서 은퇴한 경우 연간 경상소득은 265만 원, 비임금근로에서의 은퇴는 연간 791만 원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에서의 은퇴는 해당 가구의 부동산 자산의 감소를 동반하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에서의 은퇴는 저축액의 감소를 동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산항목들의 감소폭이 그다지 크지 않아 총자산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베이비붐 세대와 그 이전 세대의 노동시장 은퇴는 근로소득의 감소에 따라 해당 가구의 경상소득 감소가 경험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에서 은퇴에 따른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불충분한 소득에 대해

자산의 처분이 일정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자칫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⁷⁾

〈표 11〉 노동시장 은퇴와 소득 및 자산의 변화

(단위: 만 원)

		임금- 비은퇴	임금-은퇴	비임금- 비은퇴	비임금- 은퇴	미취업- 비은퇴	미취업- 은퇴
이후세대	구성비	73.6	0.1	23.6		2.8	0.2
	경상소득	190	78	89		54	208
	총자산	1,444	2,249	1,287		188	12,789
	순자산	1,041	1,699	573		-564	8,683
	금융자산	501	-389	348		149	804
	저축액	470	-139	433		-20	832
	부동산자산	872	2,750	662		-42	11,832
	부채액	403	550	714		751	4,106
베이비붐세대	구성비	53.2	0.8	39.9	0.5	4.0	1.7
	경상소득	186	-265	242	-791	24	191
	총자산	1,336	639	1,080	1,989	2,917	1,687
	순자산	997	1,343	908	1,965	2,027	1,287
	금융자산	503	1,477	696	-248	334	1,550
	저축액	451	1,365	723	-248	540	1,475
	부동산자산	748	-1,269	128	2,408	2,525	211
	부채액	339	-705	172	24	890	400
이전세대	구성비	22.5	4.2	31.4	2.6	6.7	32.6
	경상소득	217	-359	118	-61	456	9
	총자산	2,011	2,096	20	-148	655	666
	순자산	1,550	1,858	-21	-873	560	634
	금융자산	828	829	729	538	-295	588
	저축액	831	906	639	527	-243	596
	부동산자산	1,053	1,180	-955	-761	918	46
	부채액	461	238	40	724	95	32

자료: <표 8>과 동일.

7)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2010년과 2011년 사이 미취업상태에서의 은퇴를 포함하면 그 비중이 3.0%에 불과함)에서 자산의 처분과 부채액의 증가 경향은 이후 베이비붐 세대에 일반적인 경향으로 남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및 자산실태 수준과 변화를 베이비붐 이전 세대 및 이후 세대와 비교하였으며, 베이비부머의 고용상태와 은퇴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변화양상을 파악해 보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전반적인 소득창출력은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본인의 근로소득 창출력은 베이비부머가 중고령자가 되는 45세 이후 시점부터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인의 근로소득 창출력 약화는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세대를 막론하고 최근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이 외환위기 이전 시점으로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이전 세대에서는 빈곤율과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개별적으로 이렇다 할 노후대비를 갖추지 않은, 제도적으로도 사회보장정책의 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하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가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 또한 그들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8)에 대한 부양과 양육(교육) 책임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에 대한 대책마련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세대라고 가정한다면—물론 그 정도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와 차이는 있겠지만—현존하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화 경향은 머지않은 미래에 노년기를 맞는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상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분배개선과 빈곤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은퇴경향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비교적 최근 노동시장을 은퇴한 일부 베이비붐 세대(8)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감소와 그에 따른 소비생활 유지를 위해 자산의 소득화(자산처분, 부채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산의 쏠림현상이 심하고 특히 저소득계층의 자산축적이 미약한 상태이며, 아울러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나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인해 자산의 소득화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8) 남상호(2011)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보장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베이비부머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자는 전체 베이비부머의 68.7%로 계산하고 있다. 또한 평균 납부기간은 남성의 경우 평균 10년 이상이지만, 여성의 경우 5년에 불과해 일부만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노령연금 급여가 35만 원에 지나지 않아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더 오랜 기간의 노년기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세대에 질 좋은 노인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다각도의 고용정책을 통해 근로생애를 연장시킴으로써 소득창출력을 유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준비되지 않은 노후와 그로 인한 빈곤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KLI**

<참고문헌>

- 김지경(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부양부담」, 『노동리뷰』 63, pp.21~36.
 남상호(2011),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115, pp.1~8.
 반정호(2008),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불평등 구조분석」, 『노동리뷰』 40, pp.4~22.
 통계청(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2012. 8. 2일자 보도자료.

〈부표 1〉 세대별 빈곤율 및 적자가구 비중 추이 : 전국 1인 이상 가구(2006~2011)

(단위 : %)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적자가구	
		100%	120%	150%	200%	250%				
2006	이후세대	6.1	3.6	7.5	14.6	68.2	10.2	(4.1)	18.9	(7.6)
	베이비붐	6.3	2.8	6.1	13.5	71.3	9.7	(2.9)	23.3	(7.1)
	이전세대	21.8	5.2	7.1	12.0	53.8	31.1	(9.1)	25.3	(7.4)
2007	이후세대	6.2	2.7	7.1	14.6	69.4	9.8	(4.1)	18.5	(7.8)
	베이비붐	6.3	2.8	6.1	13.0	71.9	10.3	(3.0)	21.8	(6.4)
	이전세대	23.5	5.6	8.6	11.7	50.6	33.6	(9.5)	25.0	(7.1)
2009	이후세대	6.4	3.5	7.3	15.9	66.8	9.8	(4.8)	19.3	(9.5)
	베이비붐	7.6	3.0	6.1	13.2	70.2	10.6	(2.8)	21.4	(5.7)
	이전세대	31.4	5.9	7.5	13.6	41.5	39.9	(9.7)	24.7	(6.0)
2011	이후세대	5.5	2.9	5.9	14.6	71.2	9.0	(4.9)	21.1	(11.4)
	베이비붐	5.9	2.6	4.8	10.0	76.7	9.5	(2.2)	19.2	(4.5)
	이전세대	34.2	5.5	7.2	10.7	42.4	44.2	(9.9)	29.2	(6.5)

주 · 자료 : <표 4>와 동일.

〈부표 2〉 세대별 소득분배지표 추이 : 전국 1인 이상 가구(2006~2011)

(단위 : %)

		GINI계수	하위20% 소득점유율	상위20% 소득점유율	5분위배율
2006	이후세대	0.278	8.2	36.1	4.4
	베이비붐	0.298	7.5	37.3	5.0
	이전세대	0.403	3.5	43.3	12.3
2007	이후세대	0.283	8.1	36.5	4.5
	베이비붐	0.305	7.3	37.8	5.2
	이전세대	0.426	3.1	45.4	14.5
2009	이후세대	0.286	7.9	36.7	4.6
	베이비붐	0.304	7.0	37.6	5.4
	이전세대	0.455	2.1	47.4	22.1
2011	이후세대	0.275	8.3	36.0	4.3
	베이비붐	0.300	7.2	37.5	5.2
	이전세대	0.473	1.8	48.4	26.5

자료 : <표 1>과 동일.

〈부표 3〉 베이비붐 이전 및 이후 세대의 경상소득5분위별 자산보유 현황

(단위 : 만 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배율
2006	이후세대	총자산	4,929	7,251	8,807	12,914	22,756	4.6
		부동산자산	3,288	4,646	5,464	8,614	16,080	4.9
		주택자산	2,201	3,313	4,232	6,373	10,449	4.7
		저축액	1,447	2,308	2,936	3,738	5,869	4.1
		부채액	1,033	1,347	1,771	2,829	4,351	4.2
		순자산	3,896	5,904	7,036	10,085	18,405	4.7
		부채비중	21.0	18.6	20.1	21.9	19.1	
	이전세대	총자산	13,600	15,730	20,186	24,103	50,910	3.7
		부동산자산	11,090	12,854	16,741	20,047	42,489	3.8
		주택자산	5,708	7,137	8,567	12,809	20,472	3.6
		저축액	2,351	2,638	3,126	3,575	7,103	3.0
		부채액	1,329	1,404	2,738	2,979	5,164	3.9
		순자산	12,271	14,325	17,448	21,123	45,745	3.7
		부채비중	9.8	8.9	13.6	12.4	10.1	
2011	이후세대	총자산	4,812	6,928	11,002	15,819	27,053	5.6
		부동산자산	2,921	4,318	7,260	10,483	17,925	6.1
		주택자산	1,907	2,962	4,398	6,333	9,245	4.8
		저축액	1,691	2,246	3,263	4,661	7,983	4.7
		부채액	1,397	1,588	2,349	3,013	6,115	4.4
		순자산	3,415	5,340	8,654	12,806	20,938	6.1
		부채비중	29.0	22.9	21.3	19.0	22.6	
	이전세대	총자산	10,788	17,523	23,880	31,976	57,913	5.4
		부동산자산	9,105	14,523	20,031	26,138	46,034	5.1
		주택자산	5,778	8,672	11,442	13,821	19,990	3.5
		저축액	1,540	2,658	3,343	5,116	10,403	6.8
		부채액	1,159	2,160	3,310	4,375	8,604	7.4
		순자산	9,629	15,363	20,571	27,600	49,310	5.1
		부채비중	10.7	12.3	13.9	13.7	14.9	

자료 : <표 8>과 동일.